

‘허위·왜곡’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

피의사실공표, 3년 이하 징역형의 ‘중죄’
MB재판, 피의사실공표로 얼룩진 ‘정치재판’

[강훈의 MB법정일기 14]

MB수사는 피의사실공표로 시작해 피의사실공표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공표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는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고 추려도 수백 건에 이를 정도다. 검찰은 입맛에 맞는 내용을 골라 수사과정을 거의 생중계를 한 셈이다.

문제는 공표된 피의사실의 대부분이 재판과정에서 허위 또는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많은 언론보도로 인해 여론재판은 이미 끝나 있었고, 그로인해 사법부도 여론에 밀려 억지로 꺾여준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다스 실소유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대표적 사례가 있다. 바로 MB 아들 이시형에 대한 다스 경영승계 관련 의혹이다. 2017년 11월, JTBC를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다스 하청업체 ‘다온’이라는 회사에 대해 보도를 했다.

다온은 연매출 600억 원, 영업이익이 10억 원이 넘는 400억 원짜리 알짜 기업인데, 이시형이 그런 다온을 단돈 100만 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다스는 이시형이 매입한 다온에 물량을 밀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저리로 수십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MB가 다온을 통해 이시형에게 다스를 우회승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검찰의 수사 결과 중 일부만을 추려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다.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은 다온이 자본이 모두 잠식되고, 327억 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거절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시형은 2010년 다스에 입사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다른 회사로 갈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결과였다. 큰아버지의 회사인 다스로 갈 경우 그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해 다스에 입사했다. 이시형 입사 당시 다스의 실세는 이상은의 아들 이동형이었다.

이동형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2008년 3월 다스에 관리본부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5개월 만에 상무이사로 승진한 뒤,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이사를 거쳐 부사장 겸 경영기획실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전형적인 오너 아들의 경영자 교육코스를 밟은 것이다.

전문경영인 출신 다스 사장 강경호도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동형과 상의해 결정했다. 그렇게 승승장구 하던 중, 다스 노조가 이동형의 개인비리를 밝혀내 이슈화시키면서, 이동형은 다스 아산공장 공장장으로 좌천됐다. 그 같은 상황에서 다스의 협력업체 다온(변경전 상호는 해암, 이하 다온으로 통칭)이 부도위험에 처하는 문제가 생겼다. 다온은 다스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로 납품이 중단될 경우 다스의 생산도 중단되는 중대한 상황이었다.

다스는 다온을 인수할 다른 하청업체를 찾았으나 여의치 않자, 다온 사장 신○○에게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줄 테니 다온을 계속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은 다온을 운영할 생각이 없이라며 다스가 부채를 모두 떠안고 다온을 인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스는 다온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내부자거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동형이 아산으로 좌천된 상황에서 이시형은 로열패밀리로서 이 문제를 떠안고 나섰다.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에 스캠을 통해 부채를 떠안고 다온을 인수하기로 했다.

다스는 다온의 정상화를 위해 신○○ 사장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자금을 에스엠에게 지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왜곡해 언론은 이시형의 다온 인수가 다스 우회승계 작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진술에 모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시형의 다온 인수를 다스가 MB 것이라는 증거로 판결문에 인용했다. 그러나 우회승계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보니, 사법부는 이동형과 상의하지 않고 이시형이 다온을 인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다스가 MB 것이란 근거가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강경호는 당시 법정에서 “글로벌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한 것이며 지배구조란 용어는 처음에는 없었다”며 “이시형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 검토안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키메니저에게 14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시형에게 그런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키메니저는 이시형이 아니다”고 답했다.

MB가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폐기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상은에게 검토내용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경호는 “대주주 이상은의 지분을 조정하는 민감한 일이라 검토가 끝난 후 현실성이 있으면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현실성이 없어 중도 폐기됐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이상은에게 검토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내용을 ‘다스는 MB 것’이라는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MB의 유죄는 검찰이 왜곡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거짓을 기정사실화 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거짓이 드러나도 사법부가 이를 그대로 증거로 인용하는 과정이 반복된 결과였다.

악력

-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7.
-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기자수첩

하자 1위 오명, 억울한 DL건설

하자가 없는데, ‘하자 1위 기업’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면 해당 건설사는 얼마나 억울할까. 최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통계’가 ‘하자 판정 통계’로 잘못 알려지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모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2021년 아파트 하자 신고 건수’를 공개했다. 하자 ‘접수(신고)’ 건수는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402건, 2021년 768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해마다 하자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건설사들이 경각심을 가질 만한 통계를. 문제는 ‘접수(신고)’와 ‘하자 판정’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 신청 건수를 마치 하자가 확정된 게 이스처럼 오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고 건수 기

준 1위는 840건을 기록한 DL건설이었다. GS건설(385건), 중흥토건(331건), HDC현대산업개발(267건), SM상선(206건)이 뒤를 이었다.

본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DL건설을 대상으로 한 하자 신청 840건 중 97%에 달하는 828건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건 중 7건은 ‘기각’ 판정을 받았다.

남은 5건도 하자 여부를 두고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결과적으로 DL건설이 위원회로부터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건은 현재까지 ‘0건’이다.

지나해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일부 정치인이 동일한 통계치를 ‘하자 판정 건수’로 둔갑시켜 일부 건설사를 낙인찍었다. 해당 건설사는 발표 직후 ‘기각율이 98%에 달한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으로 하자 민원 신청은 더욱 간결하게 바뀔다.

하심위는 올해 4월, 아파트 단지가 단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손질했다. DL건설과 같은 피해기업이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신청’이 곧 ‘하자 판정’ 통계를 인용되는 현실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건설업계 전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순기능’을 주장한다.

이같은 논리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실을 왜곡한 데이터로 비난의 대상이 된 건설사들이 과연 경각심을 가지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순기능을 고려한다면 오인 가능성이 상존하는 ‘신청 건수’를 집계할 것이 아니라, 실제 판정 건수를 집계해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심위의 통계가 그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기자수첩

불신(不信) 키우는 업비트의 ‘무책임 행보’

‘스테이블 코인’이라 불린 가상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건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및 운용으로 배를 불리면서도 정작 투자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업비트의 안전한 행태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승승장구했다.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무려 3조원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110%, 영업이익은 3429% 폭증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의 점유율은 무려 80~90%에 달한다.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기준 두나무 자산총액은 약 10조 8225억원, 고액에 치금 약 5조 8120억원이다.

창업자인 송치형 업비트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면서 ‘재벌 오너’ 중 한 명이 됐다. 52조원이 증발하고, 28만명의 피해 투자자를 발생시켰던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업비트가 보여준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

다. 테라·루나가 폭락한 지난달 13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달리, 업비트는 오전 내내 루나의 입출금을 허용했다.

이 틈을 타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매입한 루나를 업비트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매도하는 코인 ‘환치기’를 통해 360배가 넘는 폭리를 얻었다. 테라·루나 폭락사태는 이미 2019년부터 예견된 측면이 있다. 그해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비트의 루나 상장과 관련해 ‘셀프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두나무의 자회사 두나무애포터스는 2018년 4월 약 25억원을 들여 루나 2000만개를 매입했는데, 업비트가 루나를 상장함으로써 사실상 ‘자전거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불투명한 운영방식과 관련한 송사도 많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남 모 재무이사, 김 모 쿼터팀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검찰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송 회장 등 두나무 운영진 3

명은 2017년부터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ID8’이라는 가짜 회원계정을 개설했다.

‘ID8’에는 1221억원이 예치됐고, 전산 조작과 허수 주문, 가장매매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 용도로 악용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요지이다.

검찰은 송 회장 등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 규모를 1500억원대로 추산했다. 지난해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업비트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했다.

해당 법률은 신고서 제출 5년 이내, 대표자와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고 결격사유로 정했다. 송 회장 등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업비트가 가상자산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두나무와 업비트 관계자들은 ‘사전·사후 매우 엄격한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투자자 손실은 유감스러우나 회사는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회피말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같은 해명이 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유클보 기자 yukp@meconomynews.com

시장경제신문 meconomynews.com		회사명 에이앤에프 코리아	
발행인 유지원	편집인 서진기	청소년보호책임자 전동식	
대표전화 02-6919-7032	(우) 04527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3층 (단암빌딩)		기사제보 press@meconomynews.com
등록번호 서울 다 10279	등록년월일 2011년 8월 23일		간별 주간
인쇄인 및 발행소 동아인앤디 / 서울 중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 02-2020-175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스타 SNS



2022 임인년(壬寅年) 7월의 띠별 운세

사주역학의 만남 라이프비전(www.lifevision.co.kr) 제공



쥐(자, 子)

순조롭다.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넘치는 의욕과 실력이 허락하는 만큼 힘 달는 대로 추진하라. 한번쯤 욕심을 부려 볼 만한 시기이니 잘 활용하여 성과를 이룩라. **60년생** 기성 내 분위기가 화목해 지니 즐거움도 함께한다. **72년생**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소(축, 丑)

시작도 좋고 진행 과정도 좋다. 안락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나친 방심은 금물이다.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마무리까지 행해야 한다. 조금만 더 신중하라. **61년생** 아무리 부정을 해보려고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힘들다. **73년생**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호랑이(인, 寅)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나서서 움직이고 행동하라.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얻게 될 것이다. **62년생** 그동안 자부 미뤄지던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 **74년생** 실으면 실패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토끼(묘, 卯)

마음은 심만하고 갈등이 많아진다. 주위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아 마음을 잡기가 더욱 어렵겠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소신껏 행동하라. **63년생**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 잘다한 일은 이루는 것이 좋다. **75년생** 재부가 흥부에게 박수를 불러다주는 운세이니 북이 한 마를 들을 것이다.



용(진, 辰)

뜻하지 않는 변전으로 상황이 어려워 진다. 이럴때 일수록 더욱 마음을 추스르고 행동 하나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마음의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다 잡아야 할 것이다. **64년생**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76년생** 근본적인 원인을 찾게 되어 자유할 수 있게 된다.



뱀(사, 巳)

모든 일에는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것을 상기하며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해야 할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라. **65년생** 오늘을 계약할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손해를 볼 수 있다. **77년생** 문서나 서류 등은 꼼꼼하게 잘 챙기고 검토해야 한다.



말(오, 午)

주위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추진된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곳곳이 밀고 나가기 한다. 끈기 있는 도전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66년생** 건강에 신경 쓰면서 일할 때다. 업무량이 많아도 무리하면서 일에 매달리지 마라. **78년생** 기쁜 일이 연속해서 생긴다.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다.



양(미, 未)

완전할 할 수는 없는법.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다.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록 조금 더 잃는다고 낙심 할 것까지는 아니니 개념치 마라. **67년생** 자신의 입장은 확실히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 **79년생** 좋은 것도 배우고 이런 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신, 申)

서둘러 진행한다고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조율의 시간을 갖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늦추면 더 잘 해결될 것이다. **68년생** 삶이 즐거우면 인생은 천국이지만 삶이 무미하하면 인생은 지옥이 된다. **80년생** 이른 통증이 사라지니 날아갈 것 같다.



닭(유, 酉)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안정을 기대해도 좋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69년생**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다. **81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면 반드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개(술, 戌)

자신의 당신의 능력 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얻어 낼 수 있으며 주위를 감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한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망설임 없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58년생** 만능수庫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가능한한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 **70년생**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날이다.



돼지(해, 亥)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려 할 수는 없다. 의지만 있다면 아무일 아닌 것 처럼 행동 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노력 많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친척하게 평상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71년생**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83년생** 오해가 풀리면서 마음이 더 깊어진다.